

지위일치·불일치 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Status Type on Clothing Expenditures: Status Consistency and Status Inconsistency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조 교 수 박 광 희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배 미 경

Dept. of Clothing &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Park, Kwanghee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Bae, Mi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umer's status type (status consistency and status inconsistency) on clothing expenditures. Data were obtained from Urban Household Economy Survey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alyses of variance and Schéffe tests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status inconsistency was categorized by three variables, such as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levels of households.

The overprivileged status group, which had higher levels of income than the levels of occupation or education, spent most on clothing whereas the underprivileged status group, which had lower levels of income than the levels of occupation or education, spent least on clothing.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othing expenditures among status groups classified by levels of income and education or by levels of income and occupation. Among status group classified by levels of education and inco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expenditures between overprivileged status group and underprivileged status group. In conclusion,

income has the strongest effect on the clothing expenditures. The results of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consumer buying behavior and also give insights of marketing strategy in the apparel industry.

I. 서론

인간은 항상 의복을 착용하며 이러한 의복은 착용자의 개개인의 특성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가치관, 역할,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사회계층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한다. 즉,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인면과 심리적인 면을 표현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복의 역할을 이용하여 개인은 남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의복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착용자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 사회계층은 그 하나이며, 이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다르며 그러한 생활양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강혜원, 1995). 다시 말해서, 사회계층에 따른 행동의 차이는 의복행동의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므로 의복에 의해 착용자의 사회계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사회는 대규모 사회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계층구조의 불안정 및 지위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불안정과 지위불일치 현상은 이를 겪는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또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적 행동을 하게 되며 그 한 방법으로 의복을 통한 과시적 표현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이금실, 1992).

조인경과 이은영(1993)은 사회계층 개념이 소비자행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헌도가 낮았던 것은 사회계층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사회계층에 따라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이며 지위불일치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금실(1992)은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같은 계층 안에서도 의복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지위불일치를 고려하여 사회계층과 의복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계층 또는 사회이동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 가운데서도 피복비 지출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비하며 더 나아가 지위불일치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 변수를 밝히며, 개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지위불일치가 그의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계층 및 지위불일치에 관한 의복행동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계층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보다 확고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층과 의복행동

사회계층이란 사회의 회소가치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사이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자리잡히고 제도화된 체계를 이룰 때 비슷한 정도의 회소가치를 갖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김경동, 1981) 이러한 사회계층에 따라 의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의복의 종류, 품질, 스타일 등이 착용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진다(이정주와 진병호, 1994).

사회계층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호, 1978).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조사한 의복

행동 변수(주의집중성, 심리적 의존성, 정숙성, 심미성, 관리성, 흥미성, 사회적 안정성, 편이성 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이나 관심도는 활동적이며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숙자와 권영남, 1986).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 자아수용성,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및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갈수록 의복불만감이 커졌으며, 상류층이 중류층보다 자아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류층과 하류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기위주 및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있어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과 이은영, 198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계층에 따라 의복행동의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확고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다른 변수들과 더불어 사회계층 또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위불일치와 의복행동

한 개인의 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의 위치가 같을 때 그 사람은 일치된 지위를 갖으나 지위의 높음과 낮음에 관계없이 기준의 위치가 서로 다를 때 지위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Lenski, 1954). 지위불일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지위불일치가 개인에게 심리적인 긴장을 가져옴으로써 태도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기본 가설 때문이며, 자신이 기대하는 대우와 타인에게서 받는 대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지위불일치자는 자신의 낮은 지위를 높은 지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긴장감, 좌절감, 불쾌감,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된다(Lenski, 1954; 고종욱, 1985).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지각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상태를 경감시키고자 일종의 긴장해소책을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긴장해소책으로 의복을 과소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강혜원,

1995).

지위불일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국외 연구는 없으며 국내의 경우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금실과 강혜원(1978)의 연구에 의하면 지위불일치의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유행과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위불일치에 의하여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유행을 따른다거나 값비싼 의복을 입음으로써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한 조인경과 이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직업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유행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으며 직업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비하여 직업 지위가 낮은 집단이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에 비하여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실용성과 경제성에 관심이 높고 유행성과 심리적 의존성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회계층 내에서도 지위불일치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계층과 더불어 지위불일치에 따른 의복행동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사회계층 및 지위불일치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관한 연구들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숙과 왕인숙(1989)은 도시가정의 피복비 지출 변화의 추이를 사회 경제적 변수로 파악하기 위해서 1963년부터 198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피복비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피복비의 구성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ardis 등(1981)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피복비 지

출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Norum(1989)은 소득, 교육수준, 직업, 연령, 결혼여부는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피복비 지출은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소득은 피복비 지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관된 결과가 밝혀졌다(Hager & Bryant, 1977). 여고생들을 대상으로한 김애련과 김진구(198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여고생들은 유명 상표에 대한 관심과 구매율이 높았고 월 평균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과 피복비 지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계층에 따라 의복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으며(김정호, 1978),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행스타일을 더 선호하며 패션 오피니언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숙과 김민자, 1984), 하류층에 비해 중·상류층이 의복의 유행성 및 심미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이금실, 1992)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사회계층에 따라 피복비 지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집단 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의미하는 사회이동과 피복비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승적 사회이동, 다시 말해서 계층적 지위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피복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1995, p. 190). 이금실과 강혜원(1978)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지위불일치와 유행 및 신분상징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위불일치가 높은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더 높으며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회계층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지위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유행하는 고급 의류를 착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위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이끌어 내기는 충분하지 못하나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 (1)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밝힌다.
- (2) 지위일치·불일치유형에 따라 피복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가를 밝힌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복비 지출 분석을 위하여 1994년의 도시가계연보의 자료가 사용되었고 총 표본수는 37008명 이었다. 도시가계연보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도시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소득 수준별, 가구 인원수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가구주의 직업별 등의 인구 통계학적 분류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계층 변수는 도시가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수준, 소득 등이 사용되었으며 피복 지출비는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등에 지출된 비용의 합산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 분석방법: 사회계층의 분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조인경과 이은영, 1993; 채서일, 1993; Coleman, 1983),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2 분석방법: 피복비 지출에 대한 지위유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인경과 이은영(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가장의 직업과 가계 소득, 가장의 교육수준과 가계 소득, 가장의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화된 집단에 따라 피복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 및 Sché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변수들의 통제하에서 지위유형에 따라 피복비 지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계 총지출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류는 채서일

〈표 1〉 각 사회계층의 범주화 기준 및 표본분포

지위변수	가장의 교육	가장의 직업	가계 소득
상	대학 및 대학원 (25.6%)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10.5%)	월소득 250만원 이상 (22%)
중	고등학교 및 전문대 (49.7%)	사무직, 판매 종 사자, 서비스직, 생산직 (59.4%)	월소득 1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62.6%)
하	중학교이하 (24.6%)	운수, 장비운전 사, 단순 노무자, 무직 (30.1%)	월소득 100만원 이하 (15.4%)

*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한 분류 및 %

(1993)과 Coleman(1983)의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조인경과 이은영(1993)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교육수준 대신 주부의 교육수준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계층을 가정의 직업, 소득, 교육수준에 의해 측정하였으므로(김미영과 이은영, 1983; 김정호, 1978; 임숙자와 권영남 1986, 이금실, 1992)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직업, 수입, 교육수준의 조합에 의해서 지위불일치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가계 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나눈 사회계층의 범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교육수준별로 표본의 25.6%가 대학 및 대학원에 속하며 상층으로 분류되었고 표본의 24.6%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 하층으로 나머지는 49.7%로 중층으로 분류되었다. 가정의 직업은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을 상층으로 계층 분류를 하였을 때 총 표본의 10.5%를 이루었으며, 직업별 하층은 30.1%, 나머지 59.4%는 중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계 소득별로 22%가 월소득 250만원 이상으로 상류층을 이루었으며, 월소득 100만원 이하는 15.4%로 하류층으로 나머지 62.6%는 중류층으로 분류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에 제시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월소득은 약 167만원 선이었다. 평균 보유한 자산액은 57만원으로 실제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의 보유액 평균은 적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피복비 지출액은 8만 7천원 정도였다. 표본의 10%정도가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25%정도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직업은 사무직, 생산직, 단순 노무자순으로 빈도의 순위를 보였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인	평 균
피복비지출	87269
연령	40.6
가족원수	3.8
소득	1672346
자산	573006
변 인	백 분 율
교육수준:	
국민학교이하	10.5%
중학교	14.2%
고등학교	43.2%
전문대	6.5%
대학 및 대학원	25.6%
직업:	
전문직	2.1%
행정 및 관리직	8.4%
사무직	31.2%
판매종사자	7.7%
서비스업	0.4%
생산직	20.1%
운수장비, 단순노무자	19.7%
무직	10.4%

2. 피복비 지출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참조).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로는 소득,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과 직업 가변수와, 소득과 교육수준 가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term)를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소득의 회귀계수는 0.027로서 피복비 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피복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Dardis, 1981; Norum, 1989; Hager & Bryant, 1977; 김영숙과 왕인숙, 198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산의 경우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별 가변수 및 교육수준별 가변수와 소득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되어 각각의 상호작용 변수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소득의 평균값(1,672,346만원)을 각각의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에 곱하여 산출된 값을 각 가변수의 회귀계수에 더하였다.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킨 회귀계수의 결과는 <표 3>의 아홉번째 칸에 기입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직업별 가변수인 판매종사자와 교육수준별로 중학교에 속하는 가변수는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를 더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평균 소득 1,672,346원에서 직업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면 전문직에 비해서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업, 운수장비 및 단순노무자 그리고 무직인 경우 피복비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로 생산직인 경우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비자보다 피복비 지출이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과 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수준이 낮으면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소비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위불일치의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유행과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는 그러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대 수준에 따라 피복비 이외에도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산직 종사자보다 피복비 지출을 더 적게 사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평균 소득이 약 167만원에서 교육수준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보다 국민학교 이하나 고등학교 및 전문대에 속하는 소비자가 피복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졸업의 학력을 갖은 소비자는 피복비 지출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게 측정될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회귀계수가 정적이며 더 크게 되어 피복비 지출이 대학 및 대학원에 속하는 가계보다 과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업 및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오는 내적 긴장감을 외부에서 경감시키고자 의복을 많이 소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가계의 소비지출항목 중 이러한 내적인 긴장감을 가장 많이 외부적으로 해결하여 과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항목중 하나가 피복비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지위불일치에 의한 원인 이외에도 피복비 지출에 교육수준별로 보아 대학이나 대학원에 속하는 집단은 피복비 지출 이외에 다른 지출항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되어질수 있는데서 다른 교육수준에 속하는 집단보다 피복비 지출이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호작용 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시켰을때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면,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교육수준별로 피복비지출에 기울기는 같은 것으로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기울기로 교육수준별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유의할 경우에 소득의 변화에 따라 교육수준별로 피복비 지출의 기울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교육수준이 국민학교인 가계와 대학 및 대학원, 또는 그외의 교육수준별로

〈표 3〉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변 인	회귀계수	T값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른 주 효과와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한 회귀계수 (소득=1,672,346)
상수	56648	7.79***	
연령	-9.68138	-0.146	
가족원수	3079.68	6.013***	
소득	0.02689	8.908***	
자산	-0.000006331	-0.026	
직업			
전문직	기준변수		
행정 및 관리직종	-43141	-5.781***	-25936
사무직	-17837	-2.631**	-6286
판매종사자	-29402	-3.883***	해당안됨
서비스업	-95284	-4.361***	-69690
생산직	-25516	-3.596**	17135
운수장비, 단순노무자	-33800	-4.763***	-16514
무직	-92722	-11.23***	-75436
교육수준			
국민학교이하	-17152	-4.182***	136387
중학교	-12077	-3.102**	해당안됨
고등학교	-6332	-2.186*	13859
전문대	-22939	-4.740***	82487
대학 및 대학원	기준변수		
상호작용 변수들			
소득*행정 및 관리직종	0.010282	3.921***	
소득*사무직	0.006907	2.844**	
소득*판매종사자	0.001617	1.015	
소득*서비스업	0.015304	4.608***	
소득*생산직	0.025504	7.655***	
소득*운수장비, 단순노무자	0.010336	3.324**	
소득*무직	0.014989	3.676**	
소득*국민학교이하	0.091811	4.421***	
소득*중학교	0.005963	1.718	
소득*고등학교	0.012074	3.463**	
소득*전문대	0.063041	16.922***	
R ²	0.1899		
Adjust R ²	0.1894		

*** p < .001 ** p < .01 * p < .05

나누어진 그룹간에 소득의 증가에 따른 피복비 지출의 증가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값이 필요하며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서 구해진 F값은 103.53이었다.

$$F = \frac{SSE(R) - SSE(F)}{df_R - df_F} / \frac{SSE(F_0)}{df_F} = 103.53 > F_{(1, 209)} \quad (F분포 표에서 F_{(1, 209)} \approx 2.09)$$

위의 방정식에서

SSE(R) = 상호작용 변수가 없는 모델에서의 오차제곱합

SSE(F) = 상호작용 변수가 있는 모델에서의 오차제곱합

df_R = 상호작용 변수가 없는 모델에서의 자유도

df_F = 상호작용 변수가 있는 모델에서의 자유도

위의 주어진 F값은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델과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얻어진 값으로 F 임계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호작용 변수(소득과 직업 또는 소득과 교육)가 유의한 것을 의미하여 교육 그리고 직업과 소득과의 상호작용 변수가 피복비 지출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분석에서는 소득을 한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나누어서 상호작용 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소득수준을 다 포함한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을 나누었을 때에는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의 경우 소득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후자의 경우 소득이 상·중·하로 나뉘어서 통제되므로 소득과 관련된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피복비 지출에 대한 지위유형의 영향

피복비 지출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각 교육수준별로 직업별로 피복비지출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 교육수준이 낮거나 직업이 하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피복비 지출을 지위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대로 가장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을 상·중·하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범주의 조합에 따라 지위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시말해서 직업, 소득, 교육수준 각각의 변수들을 상·중·하 계층으로 나누어, 이러한 계층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지위일치형이라 칭하였으며 이러한 계층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 직업은 상에 속하나 교육은 중·하에 속한다거나, 또는 소득수준은 상에 속하나, 직업 및 교육수준은 중, 하에 속하는 경우 지위 불일치형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지위불일치 집단과 지위일치형 집단간에 피복비 지출액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7, 과 9>.

(1)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

① 직업과 소득간의 지위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장 직업과 가계소득에 따라서, 직업지위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을 과대혜택집단(29.8%), 직업지위와 소득수준이 일치하는 집단을 지위일치집단(51.3%), 직업지위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을 과소혜택집단(18.9%)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직업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유형별 표본 분포

직업 \ 소득	상	중	하
상	1596(4.3%) ₁	3100(8.4%) ₁	998(2.7%) ₁
중	2069(5.6%) ₁	14188(38.3%) ₁	6910(18.7%) ₁
하	1226(0.6%) ₁	4698(12.7%) ₁	3223(8.7%) ₁

가: 과대혜택집단-직업지위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나: 지위일치집단-직업지위와 소득수준이 일치하는 집단
 다: 과소혜택집단-직업지위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직업과 소득을 이용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5>

에서 보여진다. 이 집단간의 피복비 지출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모델의 F값은 189이다. Schéffe test 결과를 볼 때 각각의 세 집단간의 피복비 지출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대혜택자의 경우 피복비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소혜택자의 경우 피복비 지출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참조>.

<표 5> 지위유형에(직업과 소득) 따른 평균 피복비 지출의 차이 검증 결과

지위유형	과대혜택자	지위일치형	과소혜택자	F 값
피복비 지출액	111.019 ^a	93.780 ^b	72.228 ^c	189.1 ^{***}

*** p < .001

ABC Schéffe test 결과로 알파벳이 다른 경우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조인경과 이은영(1993)의 연구에서 과대혜택자 집단이 과소혜택자 집단에 비하여 유행성 및 심리적 의존성은 높으나 경제성이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대혜택자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높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이 많아지는 반면 과소혜택자들은 경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Festinger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Festinger는 직업, 소득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지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낮은 교육수준 또는 낮은 직업 수준을 보상하기 위한 소비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유두련에서 인용, 1991)

이러한 결과는 직업지위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지위불일치로 인한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서 소득수준에 피복비 지출이 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육과 소득간의 지위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에 따라서, 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을 보상과잉형 집단(22.7%), 교육과 소득수준이 일치하는 집단을 지위일치 집단(47.5%), 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을 보상미달형 집단(29.8%)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

단에 속한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교육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유형별 표본 분포

교육 소득	상	중	하
상	2701(7.3%) ₁	2132(5.9%) ₁	861(2.3%) ₁
중	5772(15.6%) ₁	12023(32.4%) ₁	5372(14.5%) ₁
하	998(2.7%) ₁	4253(11.5%) ₁	2896(7.8%) ₁

가: 보상과잉형-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
나: 지위일치형-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일치하는 집단
다: 보상미달형-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교육과 소득의 지위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액 차이에 관한 분산분석에서 모델의 F값은 122로서 피복비 지출액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Schéffe test의 결과로 볼 때 각각의 집단간 피복비 지출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과잉형의 경우 피복비 평균지출액이 다른 두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보상미달형의 경우 가장 낮은 피복비 평균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표 7 참조>.

<표 7> 지위유형에(교육과 소득) 따른 평균 피복비 지출의 차이 검증 결과

지위유형	보상과잉형	지위일치형	보상미달형	F 값
피복비 지출액	111,522 ^a	95,076 ^b	81,789 ^c	122.4 ^{***}

*** p < .001

ABC Schéffe test 결과로 알파벳이 다른 경우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이금실(1992)의 연구에서 보상과잉형 집단의 유행성, 심미성, 신분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실용성 점수는 가장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상과잉형 집단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의복을 통하여 신분을 나타내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피복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③ 교육과 직업간의 지위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가장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서, 교육수준에 비

해 직업지위가 높은 집단을 보상과잉형집단(13.6%),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일치하는 집단을 지위일치집단(53.2%), 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지위가 낮은 집단을 보상미달형집단(33.2%)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표 8> 교육과 직업을 조절한 지위유형별 표본 분포

교육 \ 직업	상	중	하
상	3291(8.9%) ₁₁	580(1.6%) ₁₁	20(0.1%) ₁₁
중	5868(15.9%) ₁₁	11709(31.6%) ₁₁	4409(11.9%) ₁₁
하	312(0.8%) ₁₁	6119(16.5%) ₁₁	4700(12.7%) ₁₁

가: 보상과잉형-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지위가 높은 집단
 나: 지위일치형-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일치하는 집단
 다: 보상미달형-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지위가 낮은 집단

교육과 직업으로 인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위의 두 결과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델의 F값은 18.3으로 유의한 정도가 작고, Schéffe test의 결과를 볼 때 보상과잉형과 지위일치형, 그리고 보상과잉형과 보상미달형간의 피복비지출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나 지위일치형과 보상미달형간의 피복비지출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9 참조>.

<표 9> 지위유형에(교육과 직업) 따른 평균 피복비 지출의 차이 검증 결과

지위유형	보상과잉형	지위일치형	보상미달형	F 값
피복비 지출액	84,757 ^A	97,328 ^B	94,948 ^B	18.3 ^{***}

*** p < .001

ABC Schéffe test 결과로 알파벳이 다른 경우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함

각 집단의 평균 피복비 지출액을 보면, 보상과잉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보상과잉형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인경과 이은영(1993)의 연구에서 보상미달형 집단이 보상과잉형 집단보다 유행성 및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반면 실용성과 경제성

은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지위일치 집단과 교육수준에 비해 직업지위가 낮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복비 지출액이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여 소득 이외의 직업 및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동시에 분산분석은 소득이나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른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경우

피복비지출에 관련해 지위유형의 영향력을 다른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10-12>에 보여진다. 이 때 앞에 연구와는 달리 교육수준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며, 가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소득에 따라 지위유형을 나누었을 경우 연령, 가족원수, 그리고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지위일치형과 과소혜택자 두집단 모두 과대혜택자에 비하여 피복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유형(직업과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변 수	회귀계수	T 값
지위유형(기준변수=과대혜택자)		
지위일치형	-20352	-12.90 ^{**}
과소혜택자	-41383	-20.18 ^{**}
연령	1048.09	14.71 ^{**}
가족원수	6243.43	10.44 ^{**}
교육수준	161.08	30.35 ^{**}
상수	-9134.93	-2.13 [*]

* p < .05, ** p < .001

다음으로 <표 11>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라 지위유형을 나누었을 경우 연령, 가족원수, 그리고 직업을 통제한 상황에서 지위일치형과 보상미달형 두집단 모두 보상과잉형에 비하여 피복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유형(교육과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변 수	회귀계수	T 값
지위유형(기준변수=보상과잉형)		
지위일치형	-43688	-20.25**
보상미달형	-22210	-12.21**
연령	479.62	6.57**
가족원수	6554.65	10.96**
직업	-9639.21	-31.93**
상수	129274	27.99**

* p < .05, ** p < .001

〈표 12〉에서는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지위유형을 나누었을 경우 피복비지출은 연령, 가족원수, 그리고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지위일치형은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보상과잉형과 비교할 때 피복비지출의 차이가 없었고 보상미달형은 통계치가 유의하며 보상과잉형에 비하여 피복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Anova test의 결과에서는 보상과잉형의 평균 피복비 지출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통하여 표본의 피복비 지출은 보상미달형 즉 직업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집단에 비해 보상과잉형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득을 통제한 상황에서 소득의 영향력은 배제하더라도 피복비 지출 분포에 있어서 보상과잉형 집단 또는 보상미달형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지출의 분산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 분석시에도 직업지위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9〉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기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피복비를 과소비하는 가정과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지위불일치의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은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소득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력을 가정한 배제한 상황에서 지위불일치와 피복비지출간의

〈표 12〉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유형(교육과 직업)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변 수	회귀계수	T 값
지위유형(기준변수=보상과잉형)		
지위일치형	618.90	0.43
보상미달형	-5857.12	-2.71*
연령	82.12	1.19
가족원수	2513.26	4.34**
소득	0.04	61.61**
상수	16083	5.10**

* p < .05, ** p < .001

연관성을 보고자하여 시도되었다.

교육과 직업에 의한 지위유형에 의한 분류를 통해 지위일치형과 지위불일치형간의 피복비 지출 차이를 보기 위하여 피복비 지출에 과소비를 하는 가정(상위 5%이상),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상위 5% 이상)만을 추출하여 다른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결과는 위의 〈표 12〉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는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계층구조의 지위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교육 그리고 직업에 의해서 분류되어지는 사회계층간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계층구조의 불안정과 지위불일치 현상은 이를 겪는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또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적 행동을 하게 되며, 그 한 방법으로 의복을 통한 과시적 표현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이금실,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계층별로 나누어진 지위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분석하였다.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생애주기 변수로

연령, 가족원수를 들 수 있으며 소득, 직업,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중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피복비 지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및 대학원에 속하는 상류층보다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가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회계층에서도 교육 또는 직업의 수준에 따라 피복비 지출액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소득과 직업 그리고 소득과 교육수준에 의해 그룹을 나누어 피복비 지출액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직업, 그리고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분류된 지위유형간의 피복비 지출액 차이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소득보다 직업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즉 소득이 다른 사회계층요인보다 더 높을 경우 지위불일치를 나타내어 피복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복비 지출이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각각의 사회계층을 조합한 세가지 지위유형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과 소득 그리고 교육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유형의 경우 과대혜택자가 또는 보상과잉형이 피복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졌다. 다음으로 소득을 통제 한 가운데 세 번째 지위유형인 직업과 교육수준을 조합한 경우에 보상미달형보다 보상과잉형 집단의 피복비 지출이 많이 나타나 피복비 지출에는 역시 소득의 효과가 가장 많이 보여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대중소비의 특성인 과잉소비 및 과소 소비가 특정 계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백경미, 1997) 지출이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시장세분화의 문제점 및 지위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교육의 측면에서 또한 생산자의 판매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지위불일치가 과소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위유형에 따른 차이보다는 소득에 따른 피복비 지출의 차이가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포함한 다각적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및 우리나라 대중소비행동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 또한 요구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1)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서울.
- 2) 김영숙, 왕인숙(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3) 김경동(1981).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서울.
- 4) 고종욱(1985). 지위불일치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미영, 이은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자아수용성과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한국의류학회지, 7(2), 27-35.
- 6) 김애련, 김진구(1986). 여고생의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 9-19.
- 7) 김영숙, 김민자(1984). 기혼녀의 패션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2), 11-17.
- 8) 김정호(1978). 사회계층과 의복행동 -서울 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45-52.
- 9) 백경미(1997). 우리나라 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한국소비자학회 97년 학술대회.
- 10) 유두련(1991). 가정생활의 변화와 소비자 문제. 소비자학 연구, 2(2), 41-54.
- 11) 이금실(1992).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이금실, 강혜원(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 287-294.
- 13) 이정주, 진병호(1994). 사회계층과 지위상징으로서의 의복. 혜전전문대학교 논문집, 12집, 363-389.
- 14) 임숙자, 권영남(1986).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

- 회지, 10(2), 37-50.
- 15) 조인경, 이은영(1993). 사회적 지위 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복 선택 기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 11-18.
- 16) 채서일(1993). 마케팅. 학문사, 서울.
- 17) Coleman, R. P.(1983). The continuing significance of social class to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Dec.), 265-280.
- 18) Dardis, R, Derrick, F., & Lehfle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1.
- 19) Hager, C. J., & Bryant, W. K.(1977).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1(2), 126-132.
- 20) Lenski, G. R.(1954).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405-413.
- 21) Norum, P. 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40.